

‘너무 나간’ 과로사대책위... CJ대한통운 “근거없이 왜곡”

허위주장에 진실게임 양상

과로사대책위, 물류센터 무단 진입 분류인원 투입 불이행 등 의혹 제기 CJ대한통운, 입장문서 정면 반박

국내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가 진실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를 하고 있다.

과로사대책위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를 무단으로 진입하고, 지난 25일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 사망 등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하면서 업계내에서 택배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지난 25일 오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과로사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했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앞서 회사가 밝힌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로사대책위)이같은 노력을 근거없이 편향하고 왜곡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전날 과로사대책위는 CJ대한통운 본

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과로사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악용되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이 대리점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을 밝히는 등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선 대리점들의

‘갑질’로 택배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다.

그러면서 과로사대책위는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 이달 투입 불이행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수수료 삭감 ▲동료에게 물량을 부당한 택배기사에 계약 해지 통보 등 현장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측은 “25일 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을 투입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2000명 추가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 개 집배점과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 약속대로 내년 3월까지 분류지원 인력 투입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택배기사가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 9월 집배점장의 승인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해 계약상 ‘양도 및 담보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이후 해당 기사는 또다시

집배점장에게 통보없이 물량을 임의로 양도했고, 재발방지 약속서 작성도 두 차례나 거부해 11월18일 ‘계약 해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본사는 사실 관계 조사 후 계약 위반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은 한 대리점이 산재보험 가입 명목으로 택배기사 수수료를 삭감한 것에 대해선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집배점장에게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추가 조사 후 원칙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강북서브터미널에 현장점검을 이유로 무단진입한 뒤 회사관계자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고 1시간 넘게 노조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뿌린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무단침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캠핑족 등에 업고 몸집 불리는 ‘파세코’

올해 3분기 누적매출액 1557억 영업익 전년 76억 보다 86% 증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캠핑족이 늘며 캠핑난로 수요가 증가하자 파세코가 뜻밖의 수혜를 입고 있다. 이에 파세코 관계자는 올해 매출액이 2000억원을 무난히 넘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파세코의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557억원으로 전년 동기 1362억원 보다 14%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76억원보다 86% 대폭 늘며 눈길을 끈다.

파세코 관계자는 “올해 총 매출 예상액은 2000억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를 기반으로 내년을 더



파세코가 최근 출시한 캠핑난로 ‘캠프-10 섀트’ 제품 이미지. /파세코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파세코의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에는 ‘캠핑난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파세코는 캠핑난로를 비롯해 심지난

로, 석유난로, 전기난로와 산업용 난로 등을 선보이며 세계 난로 시장 점유율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난로 단일 품목으로 만 해외수출 1조원을 돌파했다.

해외로만 수출되던 파세코의 캠핑난로는 2000년대 후반 국내 캠핑족들이 해외에서 요구해 하는 사례가 늘며 화제를 모았다. 이에 파세코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판매를 시작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이날 기준 파세코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난로 제품은 모두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파세코는 지난 8월 자사 온라인몰에서 캠핑난로 2종 200대 예약판매를 진행했지만, 판매 시작 5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관리’ 체계 강화

중기부, 부정행위 등 방지 대책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가 부정행위와 부적정 서비스방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과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 가능한 업체 수가 8만개임을 고려해 지난 23일까지 신

청·접수를 조기 마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10만1146개의 업체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요기업 중 바우처를 통해 사용 중인 서비스 상품에 만족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및 행사기획 업체인 스타리치 에이지알 임희도 대표는 “사용료의 90%를 지원해주고 사용자는 10%만 부담하고 있어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사용 중이다”며 “컨설팅 업무와 교육도 화상 서비스 기능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 이후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23일 기준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됐다.

/백지연 기자

쌍쌍, 전동킥보드 가이드라인 공동개발

공유 킥보드 업체 쌍쌍이 도로교통공단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나선다.

쌍쌍의 운영사 피유엠피는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데이터에 기반한 교통안전 가이드라인과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모빌리티 도로안전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쌍쌍은 도로교통공단에 지역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사용 행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활용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 안전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연구한다. 이밖에 쌍쌍은 도로교통공단과 합



쌍쌍의 운영사 피유엠피는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데이터에 기반한 교통안전 가이드라인과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모빌리티 도로안전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피유엠피

계 관련 활동에 수반되는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 사용자 안전 캠페인 활동을 펼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중소상공인희망재단

5대 이사장에 민흥기 변호사

중소상공인희망재단(희망재단) 제5대 이사장에 민흥기 현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사진)가 선임됐다.

희망재단은 정기이사회에서 민흥기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민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운영위원 및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 국제숙련도 13년 연속 ‘적합’

먹는 물 검사기관 인정

코웨이의 환경기술연구소가 국제적인 수준의 수질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코웨이는 먹는 물 검사기관 인정을 위한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13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숙련도 평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을 받은 국제숙련도시험기관을 통해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받는 국제 공인 평가 프로그램이다. 평가 방법은 일정 농도의 물질이 함유된 미지의 시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후 검증기관에 제출해 항목별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는 글로벌 제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웨이

약기업 ‘머크’(Merck)사가 주관하는 먹는 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중금속, 유기물, 이온물질 등 먹는 물 분야의 17개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뛰어난 측정 및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김승호 기자